

직장여성 유산을 “위협수위”

10명중 3명 자연유산, 제조업체 가장 많아

박정순 씨 논문 〈여성의 종사산업과 자연유산〉서 밝혀

직장여성의 자연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정순 씨(산업보건)가 최근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〈여성의 종사산업과 자연유산〉에 따르면 총 임신 건수의 15% 정도가 자연유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보다 직장여성의 유산건수가 10명 중 3명으로 높게 나타났다. 또, 직장여성 중에서도 제조업체의 근무하는 여성들의 유산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.

이같은 결과는 박 씨가 의료보험 진료비명세서를 통해 1백54만여건의 여성진료실적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 1백



불규칙한 작업시간, 자세도 유산을 부추길 수 있다.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. (원내는 박정순 씨)

53개 직장의료보험 조합을 토대로 추조조사한 결과 나타난 것. 박 씨는 “진료대상 직장여성들을 9개 직장군으로 나누어 자연유산 수진자 수를 통계낸 결과, 제조업은 43.3%, 금융업은 16.2%,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20.5%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유산율이 가장 높다”고 밝혔다.

다른 직장보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여성의 유산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박 씨는 “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일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 박 씨는 “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강도가 직접적으로 자연유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생체저항력을 떨어뜨려 자연유산율을 높일 수

있다”고 설명. 또한 무거운 물건들기 등의 육체노동, 불편한 작업자세, 교대근무와 같은 불규칙한 작업시간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.

우리의 경우 임신하면 여성 스스로 금연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크게 지적되는 않았지만 여성흡연자 증가율도 유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이의 지적. “임신한 여성의 몸은 대사속도가 빨라져 체온이 증가하고 덥거나 습기 찬 환경에 민감해지며 헤모글로빈을 운반하는 적혈구의 비율이 감소해 산소공급을 방해하는 일산화탄소 등에 의해 피해를 쉽게 받는 특징이 있다”며 체내 산소공급을 감소시키는 흡연의 유해성을 지적하기도 했다.

박 씨는 “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직장에서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